

# 정부·지자체, 성보박물관 예산지원 마땅

“성보박물관의 문화재는 공공의 재산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해야 하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성보박물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종교박물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 주최로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성보박물관의 고질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지자체·사찰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보박물관이 박물관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박물관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트숍 등 부수입원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찰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성보박물관이 건립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개관 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으니 성보박물관을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면서 “성보문화재는 어느 개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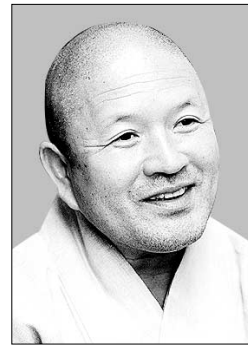
## 범하 스님 재정난 타개 전제조건 지적 “문화재 관람료 본래 목적에 활용해야”

사찰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하 스님은 사찰 측의 책임도 강조했다. “성보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청각 포교의 장이므로 성보 보존이 수행이며 신앙의 한 방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며 “종단 중범을 개정해 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화재 관람료의 원래 목적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사찰의 고정 수입이라는 인식



범하 스님

에서 탈피해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보박물관 운영 전략과 관련 “각 사찰은 장건 연기에 따라 예매 대상이 달라지고 규모와 구조가 달라진다”며 “전문인력적인 불교문화재 전시를 지양하고 특성화된 박물관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보박물관을 짓기 전에 소장유물의 성격과 염두에 두고 규모와 운영방향이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다보니 박물관을 개관하더라도 운영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물관 기능의 수

행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범하 스님은 통도사박물관(불교회화), 직지사박물관(금석문), 수덕사근역성보관(전적류) 등을 특성화 성공의 예로 제시했다.

성보박물관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로 범하 스님은 스님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스님들은 보시 개념이 강해 박물관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절의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며 “이 같은 스님들의 잘못된 인식이 전문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은 향후 기존의 유물 전시나 보존 등의 역할을 넘어서 사찰별로 진행되고 있는 불사를 감독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불사가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예술미를 갖춘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나아가야 한다고 범하 스님은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news.com



한지와 소창으로 포장된 종은 무진동 저장차량에 싣고 있다.

## 보물 2호 보신각종 용산 ‘새집’으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0만여점 이전 완료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 12월 20일 경 북궁 종각 터를 떠나 용산 새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보신각종은 높이 372cm, 직경 273cm에 무게는 24톤으로 18.9톤 인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을 능가하는, 단일문화재로는 국내 최대규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경우)의 보신각종 이전 행사는 고유제(告由祭)로 시작됐다. 이경우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삼배(三拜)를 올리며 종의 안전한 이전을 기원했다.

이러 화확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중성 지(한지)와 순면 소창으로 포장된 종은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져 무진동 저장차량(low bed trailer)에 싣렸다.

종을 싣는 차량은 서울교통경찰대의 호위 속에 세종로에서 용산에 이르는

길을 시속 5~20km로 달려 약 한 시간 만에 새 박물관 종각터에 도착했다. 종각은 종을 먼저 자리에 놓은 후, 2005년 날이 풀리는 대로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균열이 워낙 심해 걸지는 못하고 종각 안에 괴어놓게 된다.

조선시대 세조 14년(1468)에 만들어진 정통사에 걸려 있다가 원각사, 보신각으로 옮겨졌으며, 광복 이후 1985년 ‘제야의 종’ 타종을 끝으로 경복궁에 보관되던 이 종은 평탄치 않은 세월을 뒤로 하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쉬게 됐다.

이로써 10만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 이전이 마무리돼 야의 석조문화재만 남게 됐다. 이들 석조문화재는 내년 3월부터 옮길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 ‘경주 남산의 세계’ 강좌

강우방 교수 1월 5일부터

강우방 이화여대 초빙교수(미술사학과)는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강좌를 갖는다.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강좌를 통해 강교수는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의 성격을 밝히고, 불상·탑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수강 신청은 1월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woobang.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 문화재안내판 품평회 개최

문화재청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은 전국의 문화재안내판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품질을 평가하는 ‘국민이 뽑는 문화재안내판 품평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안내판 개선과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심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품평회는 안내문안 분야와 안내판 분야로 구분해, 각각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접수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안내판 개선은 유홍준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천명해온 것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간은 2005년 2월 15일까지다.

## 도굴 문화재 ‘선의취득’ 법적 보호 없애야

### 문화재청 세미나서 신의기 씨 주장

“도굴된 문화재라 해도 취득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를 문화재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주최로 12월 21일(구)국립중앙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은 “문화재범죄는 대부분 영리 목적이므로 타인에 대한 매매를 어렵게 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취득제도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문화재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이 도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민법 제24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은 공언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다.

신 연구위원은 “선의취득제도를 두는 이유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이익보

다 거래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며 “다른 재화와 달리 유통을 촉진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없는 문화재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정확한 문화재 실태조사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재 도난시 동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경매제도를 활성화해 문화재 유통을 양성화함으로써 선의 취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굴 문제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매장 문화재는 90% 이상을 도굴범이 발굴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며 도굴의 심각성을 제기한 뒤, “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 조사와 체계적인 발굴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도굴·도난 방지를 위해 학계·박물관계 전문가들과 검사가 머리를 맞댔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정필 세종대 박물관장은 “밀거래 방지에 대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윤리강령을 박물관인 자발적으로 수용해 유물대장 없는 유물은 구매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총무원에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한 이후 불화 유통이 어려워져 불화 절도가 급감했다”며 “문화재 등급조정과 지정확대를 통해 문화재 보호범위를 넓히면서 문화재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 내년 세계박물관 문화박람회 고양시

7월 1일~8월 21일, 50여개국 참가 예정

‘2005 세계박물관 문화박람회(2005 World Museum Culture Expo)’가 경기 광명공사와 경기일보가 주최로 내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는 민속관 자연사관 과학관 기업관 종교관 등 8개 전시관과 이벤트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의 50여개국 40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에는 진귀한 원시 코끼리 화석

인 스테고돈, 고생대 식물 화석, 러시아 버섯 화석, 타보 공룡알 화석,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 투탕카멘 등과 고압 이음용 화백의 유자, 도예가 이강세 작품,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인 바젤리츠, 임멘도르프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의 세계 광물화석 전시회인 제1회 서울 포실리스 쇼를 비롯해 이집트 파라오의 땅, 공룡탐험관, 세계 줄인형극 등의 행사도 계획됐다. www.wmce.or.kr, (031)911-4577

#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제일은행 725-10-022949(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명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도 메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염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에워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실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신년 10월 관음제일에  
병원장 홍기표 합장



현대불교신문 465호(2004.3.17) 게재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